



소현세자

### 역사 속 인물들 소설로 부활

## “후손들아 내 이야기 좀 읽어보소”

운명을 그린 '소현'은 작가 특유의 생생한 스토리텔링과 섬세한 묘사가 더해져 완성된 고밀도 픽션이다.

우연하게도 김훈의 '남한산성' 뒷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듯한 소설 '소현'은 김훈의 글쓰기와 김인숙식 글쓰기를 비교해가면서 읽을 수 있는 재미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출간된 권비영의 '덕혜옹주-조선의 마지막 황녀'다

덕혜옹주의 삶을 그린 소설이다. '덕혜옹주'의 인기를 타고 또 한 명의 왕후 이문용의 삶을 그린 유주현의 소설 '황녀'(아름다운 날 펴냄)가 최근 재출간되기도 했다.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이문열의 장편소설 '불멸'도 올해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지난 2월에 출간된 이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활약한 고매한 지식인 왕인박사의 삶을 그린 소설을 출간할 예정이다.

이들 실존인물을 다룬 드라마가 방송되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소설도 있다.

이문우의 '제중원 박사양'은 SBS 월화드라마 '제중원'의 실제모델인 한국인 최초의 양의사 박사양의 일생을 다룬 소설이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의 의사이자 교육자, 독립운동가로 살았던 박사양의 소설 같은 삶을 그려내고 있다.

또 지난 6일 첫 방송된 KBS 1TV 대하드라마 '거상 김만덕'을 통해 비천한 기생에서 거상으로 거듭난 조선 최초의 여성 CEO 김만덕이 재조명되면서 윤수민의 '조선의 여성상인 김만덕', 홍중화의 '조선최초 여성CEO 김만덕' 등이 덩달아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소설가 박해강씨와 한승연씨가 최근 광양 출신 매천 황현 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역사소설 '매천황현 1, 2'(문학사 펴냄)와 '매천아록'(한누리미디어 펴냄)을 각각 출간해 화제를 모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안중근

박서양

▼ 덕혜옹주 <다산책방 제공>



## 재소자들에 들려주는 클래식 선율

광주시향, 오늘 순천교도소·내일 광주교도소 공연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재소자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선율을 전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광주교도소를 방문, 클래식 선율을 선사했던 광주시향은 순천교도소(18일 오후 2시)와 광주교도소(19일 오후 2시)에서 공연을 갖는다.

연주 레퍼토리는 지난해 연주회 보다는 조금 가벼운 곡으로 골랐다.

유쾌한 멜로디의 비제 '카르멘 조곡 1번', 요한스트라우스의 '페르시아 행진곡'과 '트리치 트리치 폴카', 백 베크의 '아프리카 심포니'를 비롯해 아름다운 멜로디가 인상적인 드보르작의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2악장 등을 선사한다. '바위섬'과 '사랑의 트윙트' 등 유쾌한 가요도 준비했다.

광주시향 임흥규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임흥규 지휘자

안중근·박서양·소현세자·덕혜옹주·왕인·

### 역사적 사실·작가 상상력 결합 '픽션' 인기 드라마 속 실존인물 다룬 소설도 주목 받아

산책방 펴냄)는 이러한 역사소설의 인기를 실감하게하는 대표적인 책.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1위의 기록을 세웠으며,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이어오고 있다.

'덕혜옹주'는 고종의 막내딸이라는 고귀한 신분이었지만 일본에 볼모로 잡혀가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조선 마지막 황녀

이 책은 시대적 아픔과 격변기 속에서 살아가는 안중근 의사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출간 대기 중인 작품도 있다. 2007년 장편 역사소설 '반야 1, 2'(문이당 펴냄)를 낸 소설가 송은일은 영토분쟁과 제국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삼국시대에 백제 땅에 서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 산재장애인 홀로서기 프로그램

## '내 마음의 텃밭' 신청자 모집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산재장애인의 홀로서기를 돕는 프로그램이 광주에서 마련된다.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대만)은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3차례(월·수·금)에 걸쳐 산재장애인의 홀로서기 프로그램 '내 마음의 텃밭'을 운영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정서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변화를 통해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추진된

다. 프로젝트 '내 마음의 텃밭'은 산재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가장 역할훈련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나 전달법', 가족이 함께하는 공예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또 취업을 돕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과 장기 취업 장애인들과의 만남, 다양한 직업 훈련 등을 실시해 직업 활동에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취업알선과 함께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순 10명.

문의 062-513-097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국 전통문화 체험해보세요”

### 국립광주박물관 '외국인을 위한 문화 체험'

“한국의 과거를 알고 싶은 외국인은 박물관을 찾아주세요.”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은 오는 12월 까지 이 지역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의 우리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인 '외국인을 위한 박물관 문화 체험'(Museum for Foreigners)을 연다. 우리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단체나 다문화 가족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한국의 옛책 ▲천년의 빛 나전칠기 ▲손으로 그리는 한국의 이미지 ▲흙으로 빚은 상감 문양 ▲종이 위로 떠오르는 문양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전통 문화를 관람한 뒤 직접 부채만들기, 전통문양 그리기, 탁본 등을 만들어볼 수도 있다.

특히 외국인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 이 박물관 학예연구사들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 유물을 관람할 수 있고, 다양한 체험학습도 곁들여진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다.

한편 2007년부터 첫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에는 총 13차례 열려 5천374명의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기회를 가졌다. 문의 062-570-705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해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린 '외국인을 위한 박물관 문화 체험'에서 이주 여성들이 직접 만든 부채를 들고 부채춤을 추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 '대동문화' 3·4월호 출간

#### 남도 길 매력·가치 다뤄

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이 발행하는 격월간 문화예술 잡지 '대동문화' 3·4월호(통권 57호)가 나왔다.

이번호 기획 특집은 '남도 길, 사람과 역사를 만나다'로 단지 자연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다가서는 남도 길의 매력과 중요성, 내적 가치 등을 다뤘다.

필자로는 박창규 (전남도립대 호



태관광재과 교수),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 조동반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 송기희 (광주

MBC 전라기획팀 부단장)씨 등이 필자로 참여했다.

서예가 화정 이문홍 선생, 금속공예가 신경식교수, 연극인 박윤모교수, 임내현 변호사 등의 인터뷰가 실렸고, 아트라이프에서는 한국화의 대가 산정 서세욱교수의 삶과 작품세계를 다뤘다. 문의 062-461-15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Legal notices and advertisements section titled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Court Auction Real Estate Sale Notice).